내 것을 내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역대하 3:1~17)

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2.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5.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삼십오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16. 성소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17.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 것을 내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 것을 내게 주기엔 너무 아깝다'
요즘 제가 자동차를 탈 때마다 고민이 생기는데 지난해 봄부터 자동차를 움직이면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정비소에서는 타이어의 눈금마다 마모상태가 달라서 소리가 난다는 것인데 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골도 깊고 생고무 특유의 쫀득쫀득한 느낌도 그대로 남아있고 타이어의 상태가 아직은 멀쩡합니다. 지금 6만km를 달렸으니 적게 달린 것은 아닙니다만, 교체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아깝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서 세금이 아깝다는 말들을 자주합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시간이 아깝다는 말도 쓰고, 결혼식에서는 하객들이 신랑이 아깝다느니 신부가 아깝다느니 말들을 합니다. 또한 돈을 아까워하고 능력을 아까워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은 아깝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잘 사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우

편에서는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오르락내리락하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천군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천사들이 나를 따라 다니며 24시간 내 인생을 지켜보면서 반응할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가 바로 '아깝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놓고 일본과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겨야만 진출을 하게 되는데 90분이 흐르도록 0:0의 상황입니다. 이제 루스 타임 3분 중에 1분 50초가 지났는데 우리나라의 중거리 슛이 골대를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아까움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천군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실 때에 이러한 기분으로 아깝다는 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자매들도 있고 자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지위가 있고 이외에도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내가 나의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아깝다'라는 함성이 들려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배우자를 붙들고, 자식을 붙들고, 직장을 붙들고, 재산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늘에서는 '아깝다! 아깝다!'라는 함성이 들려올 것인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의 입에서 아깝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기에 이렇게 말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우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일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다윗이 자기자랑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벌을 집행하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중에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추게 되었는데, 다윗은 그 천사를 보고 그곳에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장소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백 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장소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성전 앞에 세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아깝다'라는 기분이 드시지 않을 만큼의 삶이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 각자가 이 성전 건축의 존재의미를 자신의 것으로서 삼는다면 하나님이 아까워하시지 않아도 되는 삶이 진행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라는 말은 일찍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아까워하지 않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 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떠나기 전에 아리따운 아내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아내를 마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조카 롯과 땅을 나눌 때에도 마음에서 땅을 내보내어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다 버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더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백 살에 낳은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으리라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을 담는 곳입니다. 자식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존재일지라도 자식 자체를 마음에 담을 수는 없기에 그 이름을 담을 뿐입니다. 그 마음의 지성소는 어느 것이든 하나 밖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것이 들어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하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 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하늘에서는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그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 들이기 위해, 백세에 얻은 독자를 아까워하지 않았을 때에 하늘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깝다'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성소와 낭실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낭실은 성소 앞의 현관을 말합니다. 이 현관의 높이가 무려 백이십 규빗(약 55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의 높이가 삼십 규빗(14m)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현관의 높이는 55m로 건축학 상으로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에스라가 잘못 적은 것이거나 필사자의 오류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보면 상식에서 많이 벗어난 기록들을 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높이를 열왕기상에서는 십팔 규빗으로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삼십오 규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축자적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오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성전 건물의 높이가 14m인데 성전 앞의 현관을 약 55m나 된다고 기록한 것일까요? 실제로 55m 높이의 건축물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내의 전역에서 볼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존재의미 중에 강조점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55m 높이의 현관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성안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은 24시간 성전 생활화를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성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성소에는 그룹 천사를 새롭게 세웁니다. 본래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두 천사가 날개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현관을 바라보도록 두 천사를 만들었는데 이십 규빗(약 10m)입니다. 한 날개가 다섯 규빗이니 네 날개를 합치면 성전의 너비와 같은 이십 규빗으로 두 천사가 성전을 빈틈없이 막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이미 지성소의 법궤를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해서 서있는 천사가 날개를 펴서 지성소를 지키는 것인데 곧 마음의 지성소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셔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이름을 들여놓습니다. 자식이나 사업의 이익을 들여놓고 젊은이들은 이성을 들여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른 이름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언제 어디에서나 보이는 55m 높이의 낭실을 통해 성전을 떠올리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집어넣은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고 자식의 일이 잘 되면 기뻐하고 자식의 일이 안 되면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집 밖으로 나오자 55m 높이의 성전의 낭실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식을 들여놓은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면서 어린양이 불에 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되자 곧 자식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내가 죽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마음에서 이미 죽였기 때문에 실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음에 아까워하고 품고 있을 때에는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자식을 버리려고 할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의 이름을 담고 그 자식을 돌보고 걱정하고 자식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교육하고 이 모든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누가 돌봐줄 것인가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그 때에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식이나 사업을 품을 때 십자가 번제단에서 죽는 것은 마음에서 이러한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온 그 이름은 우리의 사고와 판단의 출발점이자 성취를 위한 추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면 하나님을 추구하기 위해 내 마음을 하늘에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내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이때에 두 기둥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가 있음을 기억하고 다니엘은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낭실 55m를 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마음으로 성전을 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보라는 의미로 낭실의 높이를 55m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진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설교를 하고 싶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전의 낭실의 높이를 55m라고 기록한 이유는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는 족보를 가지고 많은 신학적 통찰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실지로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왜냐하면 55m는 아파트로 치면 20~25층이나 됩니다. 이것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성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잊지 않으려면 결국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 것의 이름이 들어와 있을 때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그렇게 죽으려고 마음먹을 때에, 도대체 누가 보살피고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지느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가 하신다. 그의 능력으로'라고 하시므로 아까워하지 말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까워해서 죽지 못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이름을 담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때 천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는데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벗어버리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 들였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사라지고 있으니 아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중에 지금까지 내게 허락된 것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담을 만큼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아까워하면서 마음으로 붙들었으므로 하늘에서는 '아깝다!'라는 소리가 우렛소리로 계속 따라 다니는데 나는 듣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하여 마음의 공백을 청소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것들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면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기간 동안을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천사들의 입에서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의 입에서 '아깝다'라는 탄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낭실의 높이를 55m로 지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전을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 성전의 의미가 완성된 십자가를 마음으로 보면서 세상 것을 끌어안고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내가 내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들을 내게 주기에

는 너무나도 아까운 것입니다.
내게 주지 않고 버리고 오직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게 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는 내 인생의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계속 잘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루하루 하늘에서 '아깝다'라는 함성의 우렛소리가 사라지고 '잘한다.'라는 함성의 우렛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것들을 내가 내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되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을 기억하여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리고 내 마음의 지성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